



Occasional Paper Series

04-04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December 2004

세계경제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필자 약력

Zhang Yunling(張蘊嶺)

- 現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 소장 겸 국제경제학 교수
- 미국 Harvard대, Johns Hopkins대, MIT 등 초청 교수 역임
- “Future 10~15 Years Environment for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등 주요 저서 및 논문 다수.

중국경제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

Zhang Yunling

이 자리를 빌어 중국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지역패러다임(paradigm)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나폴레옹(Napoleon)은 “잠자는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은 중국이 과연 잠에서 깨어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경제의 부상

본인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경제실적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실제로 중국은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중국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높은 GDP 성장을 나타냈으며, 연평균 GDP성장률은 9%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이루었다. 물론 금융위기 직후에 아주 잠깐 동안 성장이 둔화된 적은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여타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은 성장률이다. GDP는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에서도 성장을 이루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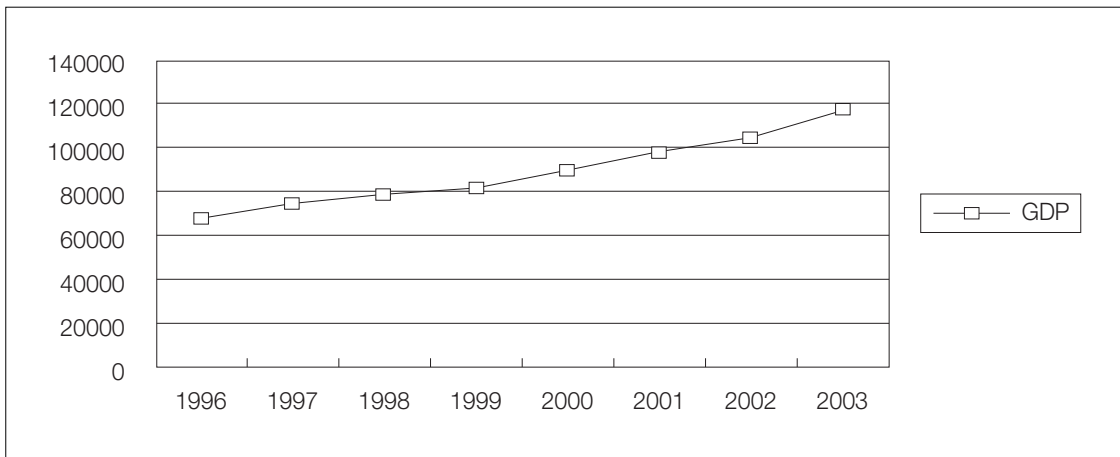
중국의 수출 역시 매년 20% 이상씩 증가해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는 현재 5,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러한 FDI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최대의 FDI 수혜국이 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수치들로 볼 때 잠자는 사자는 사실상 깨어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는 ‘강대국’ 또는 ‘초강대국’ 으로서의 중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즉, 전체 규모는 크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1인당 평균치는 작다. 1인당 평균 GDP는 1,000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00위 이하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총 GDP는 세계 6위이며 무역규모는 5위이다. 외환보유고 역시 세계 2위이다. 중국은 상품 증가 수치 면에서 최대의 생산국이다. 따라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 인 중국에 관해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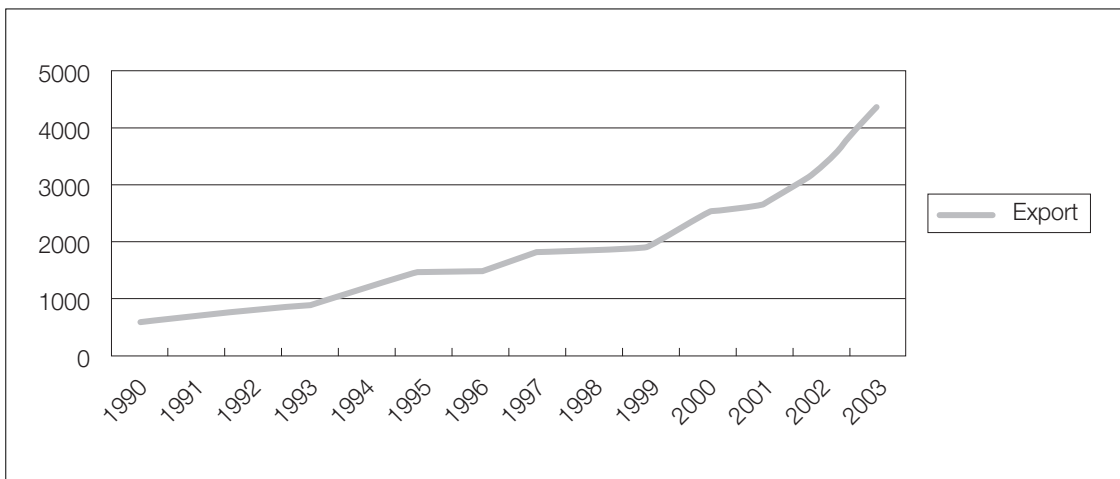
* 이 글은 2004년 7월 13일 개최된 특별강연회의 녹취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기간에 갑자기 일어났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사람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경제의 성장이 아시아 지역경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경제의 커다란 잠재력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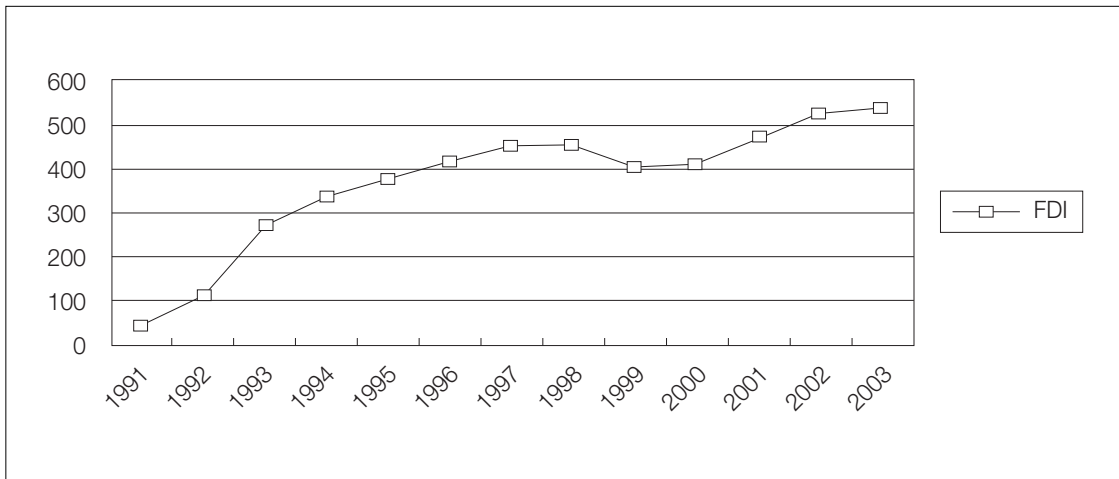
〈 표 1 〉 중국의 GDP 성장 추세



〈 표 2 〉 중국의 수출성장 추세



〈 표 3 〉 중국의 FDI 유치실적 (단위: 억 달러)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학자 대다수는 이러한 성장추세가 최소한 향후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비록 중국경제가 도시화와 구조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본, 한국,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은 지난 2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의 규모가 더 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중국경제는 이들보다 최소한 두 배의 급성장 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이 향후 20년 동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어제 중국 인민일보에 한 사실이 실렸는데,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것이 중국 지도부 중의 한 사람이 작성한 일종의 메모라고 생각한다. 그 사실은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또다시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지도부의 생각이다. 중국 국민, 특히 지도부는 중국경제의 향후 성장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치들은 이미 현실성이 떨어진 상태이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과거의 수치는 오늘이 되면 쓸모없어져 버린다. 당초 내년도 중국의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실제 금년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이미 수출입 무역규모가 5,23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규모는 금년 중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뒤이은 세계 제2위의 무역국이 될 것이다.

현재의 GDP 전망치로 보면, 중국은 16년 후인 2020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1인당 평균 수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다.

위와 같은 것들이 중국이 왜 그토록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를 설명해주는 중국경제의 일반적인 수치들이다.

‘연착륙’은 가능한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갖는 두 번째로 큰 관심사는 중국의 현재 경제상황과 ‘연착륙’ 가능성이다. 중국경제가 과열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베이징(北京)대학교의 유명한 리(Li) 교수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가 전혀 과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과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003년도의 GDP 성장률은 사스(SARS: 선천성면역결핍증)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9.1%였다. 그해 상반기만 해도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국 정부와 국민들이 사스에 대해 우려하던 가운데, 그 해 6월에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단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치가 예상외의 높은 성장률을 가져다주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높은 성장률은 중국경제에 두 가지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공급부족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기대심리 증가가 그것이다. 고성장·고수익 때문에 기업들은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확대했다. 고정자본투자가 2002년도에는 16.1%, 작년에는 26.7% 증가하였다. 그리고 금년 1/4분기 중에는 47.8%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것이다.

통화공급과 관련해서는 총통화(M2)가 2002년에 16.8%, 2003년에 19.6% 증가하였다. 금년 1/4분기 중의 총통화는 2003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은행 신용공여는 2002년도에 15.4% 증가하였고 작년에는 2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1/4분기의 은행 신용공여 증가수준은 작년에 근접할 것으로 나타난다.

금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9.7%였으며, 금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훨씬 높은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전력부족 현상이 나타났으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와 기초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하였다.

높은 성장률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불균형이다. 과잉성장은 과잉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투자산출량 대비 GDP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의 GDP 대비 투자비율은 40%를 상회한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이나 '3차 산업' 부분의 성장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대부분 국영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국영기업들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대출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선이 있다. 은행대출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국영기업의 신용대출은 전체 대출의 약 1/3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장기투자 측면에서 보면 국영기업의 대출비중은 훨씬 더 높다. 이러한 수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도에 나타난 수치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급격한 투자증가를 불러온 것이 사실상 민간부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인 개인생각으로는 그 주된 이유가 지방정부들이 대형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중국경제의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고도성장이 이어지는 것은 1992년 이후부터 줄곧 있었던 일이다. 물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예외는 있었다. 작년의 경우도 중앙 및 지방 양쪽 모두에서 새 정부가 이제 막 제자리를 잡은 때였다. 새로 자리 잡은 관료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나타내 보이려고 고도성장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이 많았다.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지방정부들은 이른바 '흑자재정(positive budget)'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채권발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채권발행은 엄격한 신용규제 없이 200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02년에 중앙정부가 보다 완화된 통화공급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주택융자를 얻어 자동차와 주택을 구입하는 등 소비가 진작되었다. 이 때문에 은행대출 특히 소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결과 작년에 주택거래는 30% 이상, 자동차 판매는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중국경제가 실제로 과열상태인지에 대한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은 작년 10월경에 시작되어 금년 봄 전국인민대표회의(National Congress) 개최당시에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중국경제가 전반적인 과열상태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부 부문에서는 아직도 저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과열현상은 일시적이며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단지 일부 부문에서만 과열현상을 보일뿐이지 경제전체가 과열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 내 각 요소들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치유책은 대개 행정적인 것이지만 어떤 정책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주로 취하고 있는 행정조치는 지방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큰 이익을 얻고자하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행정관들 스스로의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일종의 투기적 요인을 차단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미 승인했던 여러 프로젝트들을 재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토지사용 규제를 추진 중이다. 앞서 언급된 투기적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대다수가 많은 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측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 다른 행정수단은 신용규제이다. 위와 같은 대형프로젝트는 대규모 금융대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지방정부 프로젝트의 재평가를 통해 지역적 투기요소들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규제이다. 그리고 이미 몇 개의 대형프로젝트들이 재평가 작업을 통해 중단되었으며 관련 지방 관료 및 금융인들은 처벌을 받은 상태이다. 또 중앙정부는 가령 지급준비금 비율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위주의 개혁수단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수단이 악순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많다. 즉 행정위주 개혁정책의 효과로써 우선은 새로 시작되는 지방 차원의 프로젝트가 쇠신된 경향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는 더 많은 정책수단과 더욱 강력한 정부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중앙정부가 금리인상이라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당국자들은 금리인상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금융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부실채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과열상태가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령 지방부문, 서부내륙지역 개발프로젝트, 동북지역 혁신프로젝트와 같은 중국경제의 특정부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행정수단 및 정책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들은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아직도 매우 취약한 위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는 대규모 자금을 다시 배

정할 것이다.

금년 6월까지의 수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투자와 산출성장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시멘트, 철강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것이 산업부문을 억제하고 있다. 산업부문 성장률이 금년 4월에는 19%, 5월에는 17%, 6월에는 16%를 나타냄으로써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다. 작년인 2003년의 산업부문 성장률은 16%였는데, 금년에는 6월에 16%로 작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들은 전반적인 신뢰수준을 더 이상 하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은 금년 상반기에 약 36% 성장하여 매우 빠르게 지속되고 있으며, FDI 유치규모는 미화 500억 달러였던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민간부문 역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금년도 GDP 성장률은 당초 8.5%~9.0%로 예상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의 GDP 성장률이 이미 10%였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9.0~9.5%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구조는 2003보다 더욱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연착륙'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가 많다. 따라서 지금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

'연착륙'은 무엇인가? 이는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 둔화이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유지되는 한, 성장둔화 시에 스스로 고통 받을 필요가 없다. 이처럼 주요 부문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매우 높게 나타낼지만 장래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금융권이다. 아직까지도 자금지원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은행들은 이를 기록상 이미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그들의 계정에는 자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채권 규모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중소기업 관련 사항이다. 본인은 얼마 전 지양수(江蘇)성에 관한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다. 지양수성 정부는 소규모 기업의 기업주와 여타 관리자들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참석자 모두가 불만을 내놓았다. 즉, 은행이 거절하여 신규대출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소규모 기업에게는 신규대출을 하

지 말라는 지침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은행의 거절이유였다.

이와 같은 일들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자 중앙정부가 엄격한 행정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오래된 이야기이며 정부통제는 항상 있는 일이다. 긴축정책이 실시될 경우, 이를 실시하는 기간 중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많은 일들이 정부에 의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조짐이 이미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가 현재의 긴축정책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금년 하반기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가능한 모종의 조치를 취하고 개별적 사안들을 고려할 것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중국경제는 계속 부상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큰 이슈이다. 아시다시피 중국경제의 부상은 플러스(+)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즉, 세계경제와 지역경제에 플러스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치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 중국의 부상은 도전이기도 하다. 중국은 저렴한 제조품에서부터 최고급 부가가치 상품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거대한 시장이 제공되고 있다. 중국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시장의 커다란 잠재력이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들과 함께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성장해왔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수치들이 전보다 갑자기 커지게 되었다. 중국의 성장 속도와 규모가 너무 빠르고 크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스스로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과 이 세계가 새롭게 떠오르는 원자재 등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유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중국수요 때문이라고 일부 기사에서 보도되기도 한다. 중국경제의 부상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는 것이다. 높은 성장률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높은 성장률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며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문득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것

이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치를 살펴보자. 세계경제 신규성장분의 1/4이 중국경제 성장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거대한 수입국가다. 2003년 한 해만해도 중국의 수입증가액은 미화 126억 달러였다. 이는 동아시아 주변국 수입증가액의 절반을 넘는 규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중국의 힘을 느끼는 것이다. 중국의 수입구조는 우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용 수입이다. 수입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조립될 수출용 부품이며, 국내소비용 수입품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은 FDI 유치이다. FDI는 다른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가 아닌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 이미 중국은 최다 상품 생산국이다. 중국이 생산하는 상품들은 세계시장 특히 미국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여타 개발도상국들과 경쟁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한 능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

중국의 풍부한 노동력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과거에 노동력 공급이 풍부했던 관계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았던 광둥(廣東)성이 지금은 노동력의 새로운 흐름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더 나은 임금수준을 제시하는 다른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광둥성이 경쟁력 면에서 저임금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물밀듯한 수요로 인해 중국은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의 경쟁국이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향후 과제에 대해 말하자면,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중국의 최대과제는 수출주도형 성장과 자원집약적 생산이다. 중국은 이러한 것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수요증가가 세계시장에서 큰 폭으로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한 중국이 원자재 소비량의 20~40%, 어떤 부문에서는 심지어 70%까지도 차지한다는 주장이 많다. 이러한 수치는 갑작스레 높아진 것이다. 중국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 역시 큰 문제이다. 이미 정부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특별금융법인

을 설립하였지만, 이미 언급된 것처럼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인해 새로이 발생한 부실 채권들이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외에 다른 전반적인 문제는 전환에 관한 것으로 과도기적 문제이다.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장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노동력 이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중국 정부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화 정책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었으며 그 정책은 이미 실현되었다. 이에 따르는 문제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복지, 그리고 자녀교육 문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제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또 다른 과제이다. 중국에는 부패사태가 많다. 정치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중국이 따라야할 모델은 무엇인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 지도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해야 하며 어떤 모델을 따라야 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은 없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실제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이 '중화왕국(Middle Kingdom)' 을 재건한다거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될 것인가 하는 과제들도 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가? 대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강대해졌을 때 나오는 문제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본인 역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안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새로운 지역성장 패러다임

이제부터는 본인이 플러스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 과연 새로운 지역성장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는가? 본인은 새로운 지역성장 패러다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중국의 부상은 일본이나 아시아 네 마리 용의 경우와는 다른 것이다. 일본은 FDI를 유치하지 않았으며, 기술을 도입하여 자체기술로 만들어 생산한 다음 재수출하였다.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가운데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이와 유사하다. 다른 3개국은 이와 비교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미화 5천억 달러가 넘는 FDI를 유치하였다. 이와

같은 FDI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창출한다. 즉, 모든 FDI는 다른 국가 경제에 대한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중국이 등장함으로써, 중국은 역내의 모든 투자를 연결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중국 경제의 규모와 잠재력으로 인해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위한 커다란 시장이 될 수도 있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패턴(pattern)이 내수중심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내수중심의 성장패턴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과거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모델은 ‘날아가는 기러기 떼(flying geese)’ 모델이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이 선두에 있었고, 1970년대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1980년대에는 아세안(ASEAN) 4개국이었다. 중국이 이러한 추세를 따랐다면 1990년대의 선두주자는 중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1985년경에 일본에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게로 자본이 이동되었고, 이 자본은 다시 1990년대 초에 아세안 4개국으로 이동하였다. 과거의 역내 연결고리는 이러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이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그리고 아세안 4개국까지도 미국시장에 수출하였으며, 그들에게 미국은 흑자를 내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역내시장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아세안과 일본과의 무역관계에서는 아세안이 적자이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일본과의 거래에서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적자를 본다. 일본은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에 맞는 크기의 역내 시장을 제공하지 못했다. 즉 아시아에는 지역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시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경제 성장이 역외시장인 미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 그 핵심요인은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있었다. 즉,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나빠진 상태였으며 일본 또한 ‘추락한 대장 기러기’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본인이 앞서 말한 성장 연결고리가 망가져 버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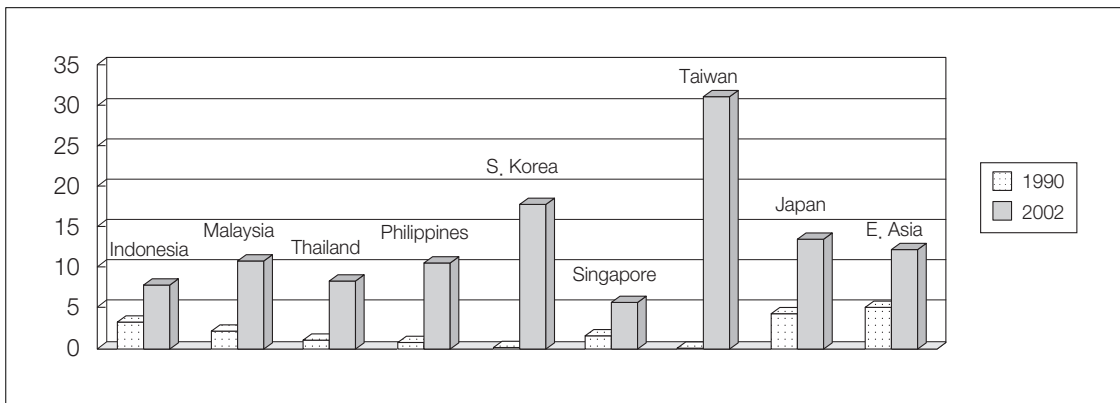
그런데 중국의 FDI 네트워크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났다. 중국으로 유입된 FDI가 생산과

서비스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역내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가 된 상태이다.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이 급상승하고 있다. 2003년도 중국의 수입은 미화 126억 달러, 수출은 113억 달러 증가했다. 또한 2003년의 중국의 대(對)동아시아 수입규모는 2,500억 달러로 2002년에 비해 75억 달러 증가했다.

지금까지 없었던 중국의 새로운 역할은 특히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부터 자원과 무역흑자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용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다. 중국의 가공수출과 내수증가로 인해 역내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잠재적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작년에 중국의 FDI 유출은 20억 달러였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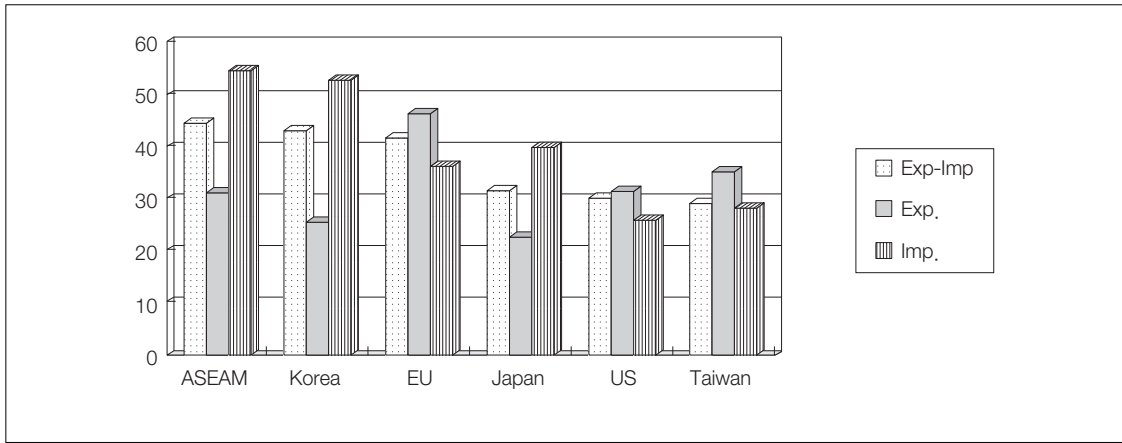
〈그림 4〉 아시아 각국의 대중국 수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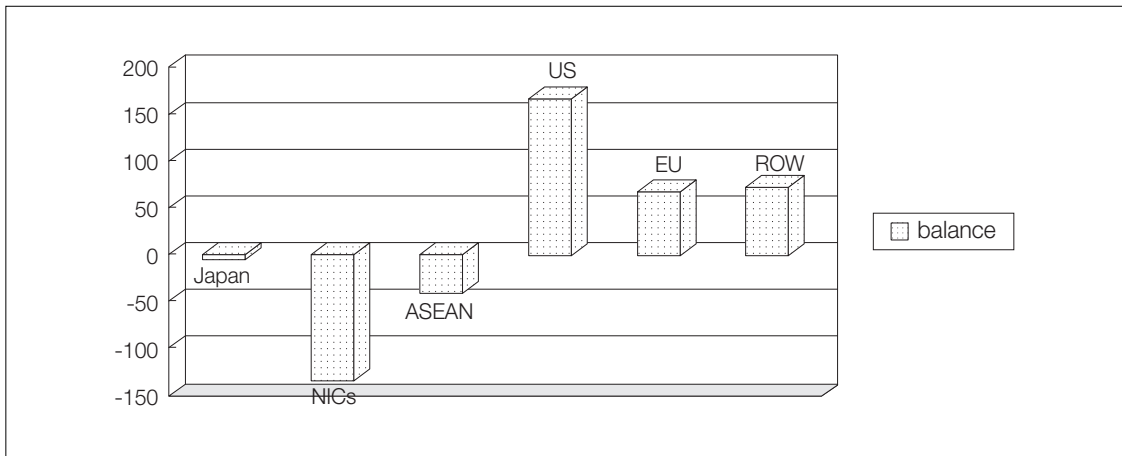
〈그림 4〉는 1992~2002년 동안의 동아시아 각국들의 대중국 수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ASEAN, 한국, 대만과 역내 여타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무역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앞서 언급된 주변국에 대한 무역흑자 재분배 역할을 중국이 2020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이 미국, EU 그리고 세계 여타지역과의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이루고, 이 흑자를 동아시아, ASEAN, 신흥공업국(NICs) 및 일본에 재분배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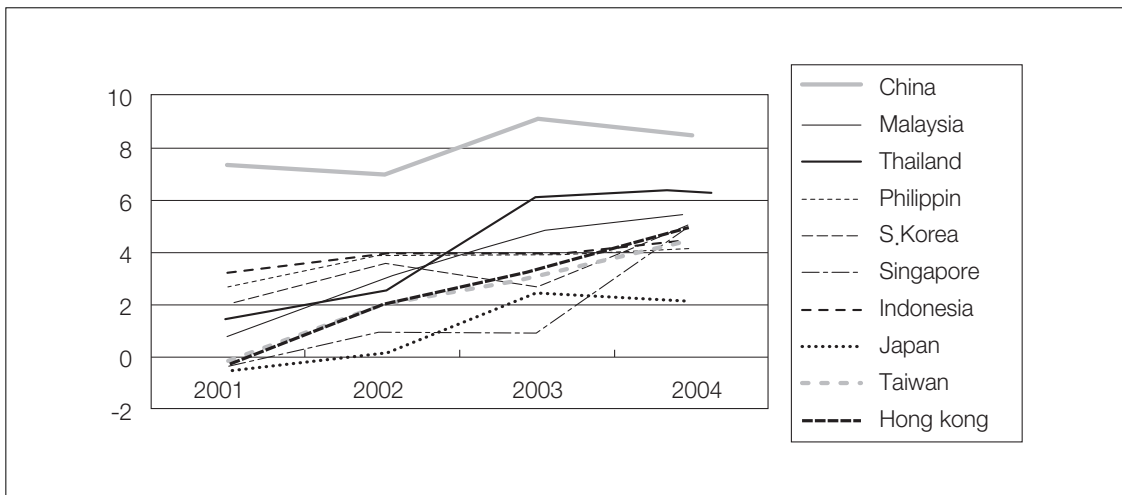
〈그림 5〉 2003 중국의 각국별 무역증가율



〈그림 6〉 중국의 무역수지: 역내 자본기여도 (2020, ADB)



〈그림 7〉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추이



〈그림 7은〉 중국과 역내 여타 국가들 간의 경제성장 관계가 어느 정도 플러스적인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8.5%의 GDP 성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그림에 나타난 수치보다 약간 높다. 따라서 그림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곡선이 다소 낮게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중국의 성장패턴은 금년도 아시아 지역 성장패턴과 거의 같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턴이나 무역이 나타나겠는가?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완전히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미국시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의 대미수출은 부진한 상태이며 심지어 감소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미수출의 총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하락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새로운 FDI 네트워크가 역내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가장 크게 성장한 부분은 역내무역이다. 중국은 앞으로의 엄청난 잠재력으로 인해 수출국의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시아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기적’을 일구어낸 당시에 결여되어 있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의 ‘기적’은 지나치게 미국시장에만 의존했다. 지금 아시아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커다란 시장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안정된 기반을 구축할 수도 있다.

새로운 성장패턴의 성격은 전통적인 하향식(top-down) 모델과는 다르다. FDI는 수평적이고 노동력 분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단순히 1~2개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사이에서 다양한 과정을 만들어 낸다. 생산과정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과정이 역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부의 분배가 분산된 상태이다. 이는 평행적 발전(parallel development)의 한 유형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대나무’ 경제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생산활동이 있을 때 이를 뒤따르는 생산활동이 더 많아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상향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로 역내 무역 및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하향식의 ‘날아가는 기러기떼’ 모델과 다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과연 지역주의는 유익한 것인가? 이러한 지역주의의 등장은 경제 통합과 협력을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 온갖 종류의 다층적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 중에 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지역적 경제통합이 시장 자체의 작동에 크게

좌우되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였고 거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많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간 합의와 FTA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다.

이와 같은 다층적 협정은 조정방법을 모색하여 앞으로 동아시아 FTA를 이루어낼 것이다. 동아시아가 역내에만 주로 의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FTA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와는 다른, 새로운 개방적 지역주의를 따른다. APEC은 모두에게 개방하는 일방적인 자유주의에 기초하지만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른 지역들과 또 다른 합의를 이루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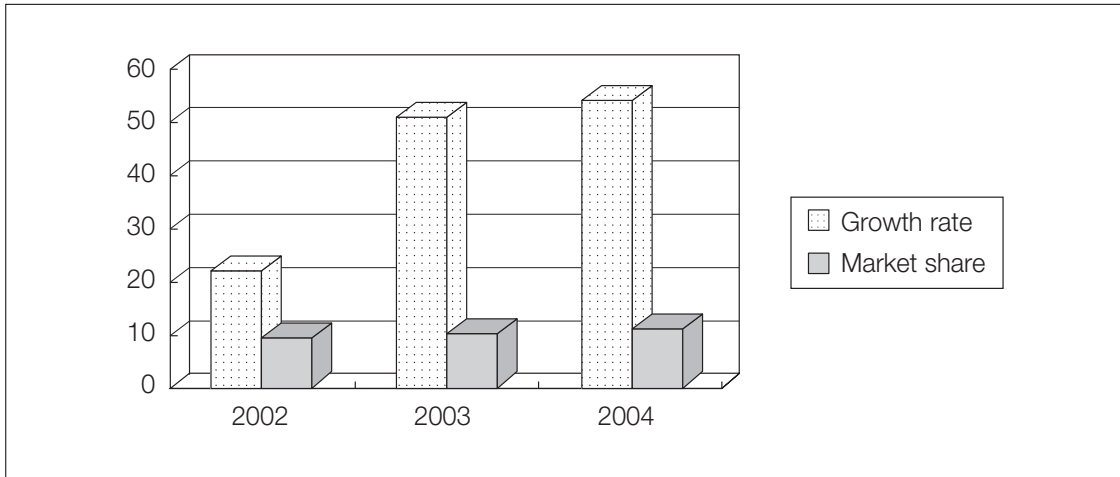
동아시아가 모든 다층적인 합의를 하나로 수렴하는데 성공한다면 희망이 있다. 지역으로서의 아시아, 아시아공동체, 또는 아시아FTA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든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노력, 과정,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한·중관계

일반적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매우 보완적이며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기업의 수출과 중국기업의 수입에 의해 주도되는 한국의 FDI는 양국 모두에 득이 되는 것으로 이 또한 계속될 것이다. 많은 한국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보완적인 성격이 향후 3~5년 내에 바뀌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본인은 양국 간의 보완관계가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는 매우 창조적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는 스스로 작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국 간의 격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며 보완적 관계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일부 부문에 있어서 양국 간의 격차는 감소하겠지만 전반적인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림 8>은 한국으로부터의 중국 수입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해 볼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작년에 51% 증가하였다. 중국은 많은 한국 수출상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본인이 얼마 전에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는 금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림 8〉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현황



한국은 중국이 거시경제 환경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산업화가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기회를 창출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1970년대의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기업들은 이 기회를 통해 국내 역량을 재분배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upgrade)시켜야 한다. 또 다른 기회는 통신부문으로, 이 분야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한국기업들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투자자가 너무 많아 과잉경쟁 상태이므로 자동차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신규투자는 신중해야 하며 중국시장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한국기업이 역내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기업의 투자가 중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아시아 지역 전체의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질 의 · 응 답

[질 문] 아시다시피 중국의 '연착륙'은 세계경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과열'된 경제를 금융대출 증가 억제 등을 통해 냉각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과열' 경제 문제를 타개할 수단을 두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수단에는 중국의 해외투자 확대허용 조치나 최근 미국에서 뜨겁게 논

의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같은 것도 포함되는가?

특히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서 적자 및 흑자의 큰 원인이 고정환율제도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중국의 '과열'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금융대출 증가 억제보다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한층 논리적인 접근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답 변]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서 적자 및 흑자는 주로 지역경제 구조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일본 및 아시아 네 마리 용의 대중국 수출 면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 위안화의 환율 때문이 아니다. 특히 지역통합과, 각기 다른 국가 및 기업 전반에 걸친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해보면 중국 위안화의 안정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이익이다.

만일 위안화가 평가절상된다면 이러한 네트워크도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불안요소를 유발하는 것이며, 게다가 중국에는 이미 금융부문을 비롯한 여타 부문에서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지역네트워크에는 안정된 통화가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의 다각적 협력네트워크는 예측 가능한 환율이 필수적이다.

미·중 무역관계의 적자 및 흑자에는 중국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역적인 요인이다. 이 지역적 요인은 일차적으로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의 환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위안/달러 환율을 변경하려 한다면 아마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환율을 변경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1990년대 초에 통화가치를 평가하여 오랫동안 그 환율을 유지해왔다. 수출역량은 통화가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지역성장 패러다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원과 역내 수출역량의 발전 및 재분배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본인은 모든 통화에 대한 위안화의 유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만일 위안화의 환율을 흔들다면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중국은 수출을 위해 수입한다. 위안화의 평가절상은 수입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제품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대국에 비해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미·중 무역관계의 적자 및 흑자 구조를 바꾸지

못하며 금융부문의 문제들만 야기할 뿐이다. 중국 수출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현재 환율은 거의 중국 수출비용의 전형이다. 현재 중국의 모습이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 통화공급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통화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회수 부담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즉 위안화가 평가절상될 경우의 문제는 통화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다른 정책은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질문] 중국 자본거래 자유화의 장기전망은 어떠한가?

[답변] 지난 몇 주 동안 중국 중앙은행은 자본통제가 더욱 유연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몇 가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자본유출을 허용함으로써 중국시장 내의 고조된 자본축적 압력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한 가지 방식이며, 다른 방식은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고 필요시에는 자본을 이전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환율의 신축성에 관한 정책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2~3년 내에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본통제는 자본유출이 이루어지고 국내적 압력이 해소되도록 점차 완화될 것이다. 머지않아 중국 내 자본수축이 커지게 되면 자본거래는 더욱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다.

[질문] 금융부문 개혁 및 이와 관련 제반 문제들에 대한 로드맵(roadmap)은 무엇인가?

[답변] 금융부문 개혁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중국 진출 외국기업이 증가함에 따른 외국기업에 대한 금융부문 및 금융서비스 자유화이다. 그 다음은 외국은행들이 중국의 은행, 특히 건설 및 산업 은행들의 지분을 매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은행들이 다국적 은행이 될 것이다. 또한 증권회사도 외국인구매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질문] 위안화가 다중통화 변동바스켓페그제(multi-currency floating basket peg system)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아시아 통화단위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어떠한가?

[답 변]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통화들이 아직 태환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역내에 그와 같은 집단적 변동환율제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금융 및 통화 협력이며 시장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역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주창자로 나서서 이와 같은 집단적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중국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위안화가 태환성을 갖게 될 때까지는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통화와 관련해서는, 금년 10월 ASEM정상회의에 제출할 권고안 작성을 맡은 ASEM 특별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지역통화와 관련한 어휘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그룹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동아시아 단일통화의 '가능성'에 대한 것뿐이다. 그룹 내 동아시아 위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일부 있었던 점은 본인이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 가능성'이 아닌 '전체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지역통화는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단일통화체제는 고도의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고도의 정치적 뒷받침이 없다면 지역통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는 역내에 고도의 정치적 사안으로 자리 잡아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중국이 이러한 정치적 지역공동체를 수용하기까지는 앞으로 반세기 이상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역통합에 앞서 한반도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지역통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질 문] 미국은 수 년 동안 훌륭한 성장을 누려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기술 산업 특히 IT산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것이 저렴한 중국 제품 덕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중국은 석유, 석탄, 알루미늄, 철강 등 많은 원자재를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중국 원자재 소비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나 가능성은 없는가?

[답 변] 몇 달 전 중국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들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다. 대체로 앞서 언급된 원자재 수입은 일부 분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게 되면 최종생산품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석유가 불확실성의 한 요인이지만 현재의 유가급등에 대한 주된 요인이 중국은 아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4~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 GDP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중국이 세계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질 문] 귀하의 오늘 강연은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귀하의 견해에 공감한다. 우리는 이미 4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를 이룬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 같은 경제실적을 달성할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귀하는 중국을 1970대 한국의 사례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국이 성장이라는 팽팽한 줄을 타는 작은 발레리나라면 중국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거대한 코끼리이다. 명령경제(command economy)였던 일본 및 한국의 경우와 중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본인은 중국이 명령경제 성장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가 초기에는 자국시장에서 외국참여자를 배제하였지만 중국은 시작부터 경제개발에 외국참여자를 적극 포함시켜왔다.

양적으로도 그 수치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양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점점 더 큰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자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낭비적인 소비자이며 동시에 엄청난 공해생산자라는 점 등이다.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수준까지인가? 세계 원자재 수급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과도하지 않도록 중국 중앙정부는 원자재 사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현재의 간단한 추계에 의하면 이 세계는 앞으로 백년 내에 중국에 의해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또 산업발전이 너무 진행되기 전에 중국이 공해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둘째, 저렴한 노동력이 좋기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렴한 노동력이 생산적인 노동력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노동력의 자질향상과 교육이라는 질적 과제를 안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대학에 갈 수 있는 중국인은 극소수로, 10억 인구 중에 약 백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절대로 필요하다. 쉘젠(深川)이나 광저우(廣州), 상하이(上海)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렴한 노동력으로는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기업들도 이들 지역에서 빠져나와 이전하고 있다.

마지막 질문은 물류와 사회간접시설(infrastructure) 개발에 관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상품이동이 매우 어렵다. 꼬끼리처럼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답 변] 귀하는 사실상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인은 중국이 매우 특이하고 새로운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거대한 나라가 산업화 과정을 경험한 경우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산업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중국은 인구이동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동시에 투명한 경제와 높은 성장률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단 한 가지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부 분야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다. FDI 주도의 성장패턴으로 인해 사람들이 점점 더 효율적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보다 좋은 그리고 덜 오염된 발전단계로 가기가 더 나아질 것이다. 초기단계에 있는 중국은 저렴한 노동생산의 이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거대한 공해 생산국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러한 과정이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FDI가 이와 같은 비효율적인 성장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을 예로 들자면 대도시의 자동차 배출가스를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해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인 중국을 여행해 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철강과 시멘트 등이 소비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 개발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만을 구축하는 데에도 20년 이상 동안 철강과 시멘트를 소비해야 가능할 것이며, 저렴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커질 것이다. 이는 이중경제(dual economy)의 또 다른 측면이다.

중국 경제학자와 정책당국자들이 이러한 지금의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은 중국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리 모두가 중국이 이상적으로 현대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공해산업의 중국이전이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기업들이 이를 필요로 하고 중국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지난주에 광시(廣西)성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지방프로젝트를 조사한 바 있다. 아시다시피 지방프로젝트(철강이나 시멘트 같은)들은 모두가 많은 공해를 유발하지만 수익성 또한 매우 높다. 이 프로젝트들이 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역시 마련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들이 국민생활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한 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학자들은 농촌사람들이 자신의 자연환경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중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 세계가 중국의 근대화가 적절한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전 인류에 대한 과제이다. 중국은 이처럼 큰 규모의 급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장이라는 측면은 매우 강하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 있는 정부 정책은 어떤 때는 강하지만 어떤 때는 매우 약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적인 공해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하지마라 저것을 하지마라 하는 요구보다는 협력이다. 그리고 사실상 공해산업의 대다수는 한국과 일본이 투자한 것이다.

[질 문] 중국 3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1인당 GDP는 얼마나 되는가?

[답 변] 본인은 지난주에 중국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들 중 한 사

람이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선진대열에 들어섰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중국경제는 왜 20년간 급성장을 하였음에도 아직 선진대열에 진입하지 못했는가?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의 GDP 수준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 가깝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이중경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성장한 후에는 최소한 중국 절반지역의 경제가 1990년대 중반의 한국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본인의 마음이다. 2050년이 되면 중국 전 지역의 경제가 1990년대 초의 한국 수준에 도달해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많은 지역이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극명한 대비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중국 경제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써 지역 간 격차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질문] 중국 내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큰 격차를 해소할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이에 대한 주요정책은 전반적으로 서너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부대개발(Great Western Development)’ 전략으로 가난한 서부지역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또 상하이와 위엔룽(元朗)의 경우처럼 잘사는 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자매결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인적자원을 포함한 많은 자원을 이전시킨다. 그리고 상하이나 서부해안지역의 부담으로 가난한 지역에서 수개월 내지 1년 동안 종사하도록 하는 특별시스템도 있다.

작년에 중국 중앙정부는 ‘동북혁신프로젝트(Northeast Renovation Project)’ 를 새로이 채택했다. 이는 국영기업을 재조정하여 외국투자가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합작투자가 허용된 외국 기업 및 지역은 국영기업의 매입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금을 더욱 많이 유치하고 정책조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특혜를 주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새롭고 보다 자유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다. 과거의 경우라면 ‘동북혁신프로젝트’ 가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동북지역의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개인 기업 및 사업을 지원할 기초 자금 분배가 더욱 더 민간부문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정부가 아닌 개인 및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

이 작년에 있었던 큰 변화이다.

셋째, 정부는 종래의 빈곤구제정책에서 탈피하여 가난한 지역에 대한 기업이 정신과 기업, 그리고 기술 이전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는 발전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가난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지역 간 격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또, 저개발지역 발전방법에 대한 의식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경제성장만 지원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으나 지금의 정책당국자들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칭하이(青海)성이나 윈난(雲南)성의 경우를 보면 지방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히 자금만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기업과 생태학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지역 환경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새로운 생각은 산간지방의 주민들을 재배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이주를 권장할 새로운 도시지역 건설도 포함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강이나 산 등의 자연환경을 제외한 해안지역만으로도 중국 전체 인구의 80%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개발 청사진이 전체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앞서의 사안들과 관련된 새로운 생각들이 몇 가지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적 개발전략 개념을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과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무를 기르도록 권장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중국 정부 내에서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새로운 정책들은 많이 있으며 현대화와 산업화에 대한 정책수단은 특히 그러하다. 중국의 경우 이와 같은 전통적 개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전통적 개념을 이행할 방법은 무엇인가? 중국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만 한다.

[질문] 한국 정부는 이른바 '동북아 중심지' 라고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후관계를 볼 때,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이 참여하는 다국적 협력기반 투자프로젝트를 일으키는 촉매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협력기반 투

자의 중심지에는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도 포함될 것이다. 귀하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답 변] 바로 어제 ‘중국 동북지역 산업구조조정과 동북아시아 협력(Northeast China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North East Asian Cooperation)’이라는 주제의 국제회의가 다리엔(大連)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의 많은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석하였다. 이는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른바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과 같은 것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여 우리가 해온 일들이 많다.

앞서와 같은 종류의 정부주도적인 프로젝트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상업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상업은행(Northeast Asia Commercial Bank)’이나 ‘보하이상업은행(Bohai Commercial Bank)’ 등과 같은 은행을 텐진(天津)에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석유프로젝트 등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한국과 러시아간의 가스 파이프라인(gas pipeline)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다.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미래를 밝게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China's Economic Rise and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Zhang Yunling

It is my pleasure to be here and to have this opportunity to discuss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Napoleon is quoted as saying, "Let China sleep." Let's see first whether or not the sleeping lion has woken up.

Understanding China's economic rise

I am sure you are all familiar with the figures. There has really been a big change for China. It saw two decades of high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1979 to 2003.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in GDP was more than 9%. Also,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China continued to have a high growth rate, though there was a very short slowdown immediate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was still higher than the other economies in the region. GDP has been growing in yuan, as well as in dollars.

China's exports have also been growing annually at more than 20%. Inflow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have been more than US\$ 500 billion. FDI flows are moving generally upward. Last year China became the largest recipient of FDI, exceeding even the US.

All these figures seem to show that the sleeping lion has really woken up. Now we talk about China as a "power" and as a "big power". However, China has two faces. It's big in total size, but everything is small in *per capita* averages. GDP *per capita* is only about US\$ 1'000, ranking somewhere below 100th in the world. But as total sum, it's the sixth largest, and in foreign trade it is the fifth largest. In foreign exchange reserves, it is the second largest. China is the largest producer of an

* A transcription of a speech given at Distinguished Lecture forum on Tuesday, July 13, 2004.

increasing number of goods. We are starting to talk about China as being the “world factory” for, not all, but for many, many goods.

All this suddenly happened in a very short time. Why have people paid so much attention to it? The main reason is that this growth has been very fast. Secondly, it has brought about structural changes in the region and to some extent in the world economy as well. Thirdly, everyone expects big potential from the Chinese economy.

Figure 1. China's GDP growth trend (in RMB 100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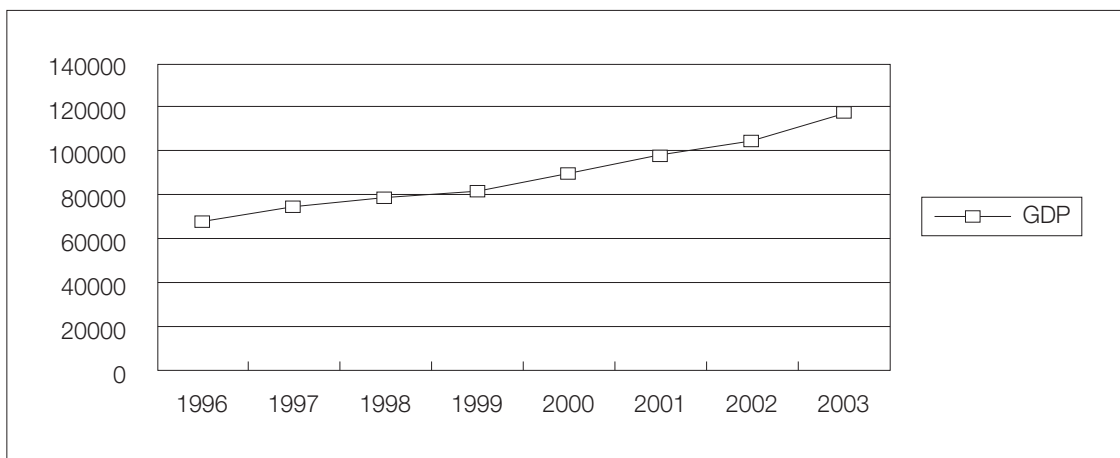


Figure 2. Growth trend in ex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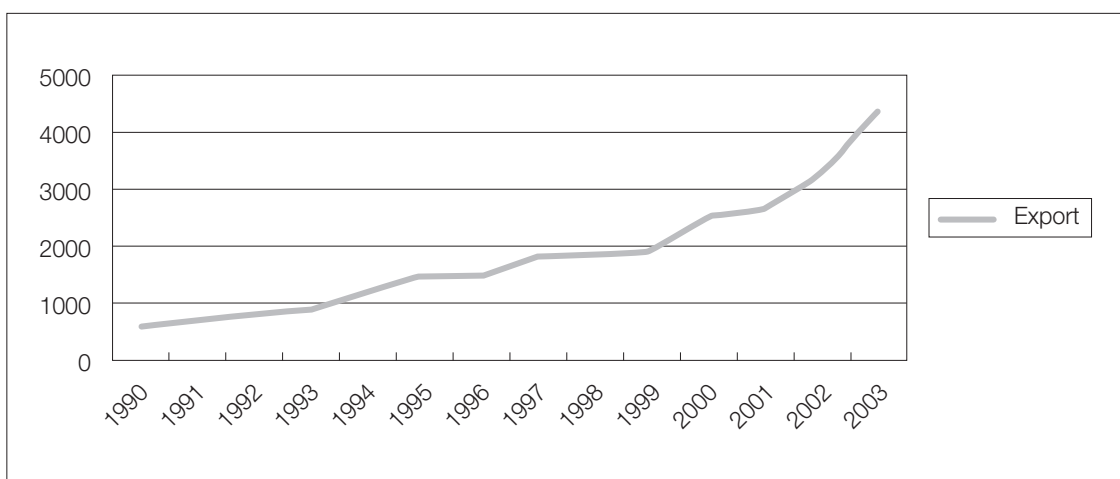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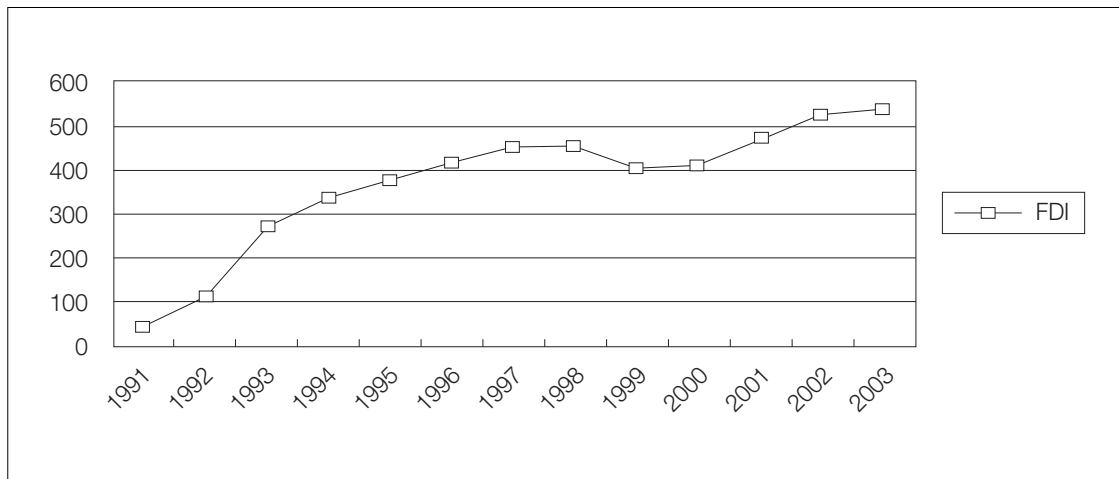


Figure 3. FDI flow to China (in USD 100 million)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this trend can continue. The majority of Chinese economists are confident that this rising trend will continue for another two decades at the least. This is for several reasons. Potential is still there, even though the economy is undergoing a process of urbanization and structural changes. Japan, South Korea or the four dragons experienced two decades of high growth. Considering China's larger size,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can theoretically continue for at least double the time of those smaller countries. So at least another two decades of high trends is possible.

Just yesterday, the *People's Daily* published an editorial that, personally, I thought was some kind of memo made by one of the top leaders. It said, "We should be determined to have high growth for another two decades." So that's what the top leaders think. The people, especially the leaders, are confident about future growth possibilities.

As for foreign trade, any current figures you see have already left reality behind. Everything is developing so fast that yesterday's figures are today obsolete. Originally, foreign trade was expected to exceed US\$ 1 trillion next year. But I think it will actually hit that figure sometime this year.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ready saw trade worth US\$ 523 billion in exports and imports. So it will surely exceed US\$ 1 trillion this year. We will then have become the second largest trader

in the world, after the US.

According to current GDP projections we will beco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n sixteen years, by the year 2020. But, as I said, the average figure *per capita* will still be low in the ranks. That is China.

Those are the general figures of the Chinese economy, explaining why China has received so much attention from the world.

Is a “soft landing” possible?

The second large concern people have about China concerns the current situation and whether a “soft landing” is possible. There is still debate in China whether the economy is over-heating. Some economists argue that there is no over-heating at all, such as the famous economist Professor Li at Beijing University. Others argue there is over-heating.

In 2003, GDP growth reached 9.1% despite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few people expected there to be such a high growth rate. The government was worried, people were worried, and starting in June a lot of measures were taken to stimulate the economy starting. That brought about the higher-than-expected growth rate.

This sudden high growth had two major effects on the economy. First, there was a shortage of supply. Second, future expectations rose. Because of the high growth and high profits, companies invested more for future profits. Fixed capital investments in 2002 were up 16.1%. Last year, growth reached 26.7%. During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it was 47.8%. This trend will continue to be much higher than people expect.

Concerning the money supply, in 2002, M2 grew by 16.8% and last year by 19.6%. In the first quarter this year it was higher than the 2003 figure.

In 2002 bank credit grew by 15.4%, and last year more than 20%. The numbers from the first quarter this year say growth will be close to last year's figure.

In the first quarter this year, GDP grew by 9.7%. In the first half this year, it is expected to reach 10%, even higher than last year.

The economy seems to be going up and up. That has created a shortage of electricity. Prices of raw materials and basic supplies, like steel, cement and aluminum, have all increased very sharply.

The high growth rate is good, but it is too high. The main problem is imbalanced growth. Too high growth depends on too high investments. There is a declining ratio of GDP to investment output. These days, the investment to GDP ratio is more than 40%. Secondly, there is only low growth in the rural, or "third", sector. Most of this investment comes from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s they are subject to more relaxed lending rules.

There is some confusion about this. According to bank lending figures, credit lent to SOEs last year accounted for about one third of the total. But in terms of long-term investments, the SOEs have a much higher percentage. These figures are controversial. Because of figures from last year, some economists argue that it is actually the private sector that stimulated this sudden high growth of investment.

Personally, I think the main reason is that local governments started too many big projects. If you recall past experiences in the Chinese economy, since 1992 there has always been high growth rates immediately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a new government. There was an exception, though, in 1997 be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At this time last year, we just had a new governments put in place at both the local and central levels. All these new bureaucrats tried to create high growth rates to show their ability and achievements. There were a lot of projects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local governments adopted what was called a “positive budget” policy. Local governments issued a lot of bonds to support their expenditures. But this was done without any strict credit controls. This worked until 2001. But then in 2002 the central government introduced a more relaxed monetary supply policy. At the same time, people were forced into mortgage loans and they were encouraged to consume, to buy cars and houses. Because of this, bank loans and especially consumption loans increased very sharply. Results from last year show that housing sales increased more than 30% and automobile sales close to 70%.

How to solve this problem? In about October last year, economists began debating whether or not the economy was, in fact, over-heating. In spring this year, when the National Congress was being held, the debates started again with renewed vigor. It is too dangerous to come to the general conclusion that the economy is generally over-heating. Some sectors are still seeing low growth. So the general conclusion for the policy makers is that over-heating is happening, but it’s only partial. Only some sectors are over-heating, not the whole economy. This requires a more complex policy, one that can identify the different elements in the economy.

The remedies to these problems are mostly administrative, but which policies to use is still debated among economists. The central government mostly uses such administrative measures to stop local government-initiated projects. It wants to stop this kind of speculation in large investments where the local government, or the local administrators themselves, are hoping for big future profits.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has re-evaluated many projects that had been previously approved.

In particular, the central administration tries to control land use. Many of these local speculative projects use a lot of land. So the central administrators start from that side. Another administrative tool is control of credit. There is a lot of bank credit—loans—involved in these big projects. In both of these ways, administrative rules can be used to stop local speculators through the re-

evaluation of these projects. Several big projects have been re-evaluated and stoppe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bankers involved were punished. The central administration can also use monetary policy. It can raise the reserve rate, for example.

There is debate nowadays about the possible results of these administration-oriented reform measures. Many people argue that it may create a vicious circle. After the first wave of administrative policy reforms, the trend might begin anew, with new projects being started at the local level. This will only lead to even more policies, and another wave of government crack downs.

They argu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use conventional methods to increase the interest rate. But it seems that, until now, policy makers are very nervous about raising interest rates. That could add to the banks' burden and exaggerate the situation of their bad loans.

Since this over-heating is only partial, some positive measures and policies are needed to continue to support particular sectors of the economy, for example, the rural sector, the western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northeast renovation projects. Those will not stop. The central government will re-allocate a lot of funds to these projects which they think are still too weak.

So generally now, up until June this year, the figures seem positive. As investments continue to decline, and industrial output growth starts to decline, prices for major raw materials, like cement and steel, have all come down. This forces down the industrial sector. In April, growth was 19%. In May, it was 17%. In June, 16%. For five consecutive months, the industrial sector has declined. Last year, in June 2003, the industrial sector growth rate was 16%. Now this June it was 16% as well, close to the level last year.

This shows that up until now, confidence in the whole economy is still strong. These macroeconomic policies will not lower the general confidence level. Confidence still seems strong. Exports continue to grow very fast, at about 36%

during the first half this year, and FDI flows seem to be even higher than they were last year when they were at US\$ 50 billion. The private sector also continues to rise.

The GDP growth rate this year was originally expected to be between 8.5% and 9.0%. But now most people think it may be 9.0% or 9.5% becaus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year it was already 10%. That is higher than last year. But the overall economic structure is more balanced than it was in 2003. There are many good signs pointing toward a “soft landing”. Most people now think a “soft landing” is possible.

What is a “soft landing”? It is an economic slow-down without major pain. As long as your growth rate is still very high, it’s not necessary that you hurt yourself when you slow. Growth rates will still be very high in major sectors, but there are some worrisome signs for the future.

The most worrisome feature is the banks. Even though many projects have as yet only been half-financed, some banks have recorded the project as having been already completely completed. In their accounts, they show that they have gotten back all their money. So the number of bad loans may yet increase.

A second worrisome feature concern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 just saw a report about Jiangsu Province. The provincial government gathered together entrepreneurs and other managers from small companies. The government wanted to hear their thoughts and to listen to their ideas. All the entrepreneurs complained. They said they could not get any sort of new credit from the banks, as the banks had said no to them. In their defence, the banks claimed that they had instructio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not provide any new loans to smaller companies.

This sort of thing happens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uses harsh administrative measures to try to stop anything bad from happening. That is an old story in China; it is always the government that controls. When you have a

tight policy from the top, during the immediately following period of time many things—bad and good—may be stopped by the government.

There are already some sig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ing this type of problem. Generally it will not stop its current tight policy, but it will make some different arrangements and consider individual cases, if possible, later in the year if things worsen.

If you follow these current trends, the Chinese economy will continue to rise. How can we understand China's rise? It's a big issue. As we have already seen, China's rise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 positive factor. It is a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world and to the regional economies. We have all those figures which I just mentioned. But on the other hand, China's rise is also a challenge. China becomes a strong competitor, not just at the low-end of the manufacturing spectrum, but increasingly at the high-end with value-added goods.

China's rise provides a big market. China is a rapidly developing market with big potential. But people are still not certain about the long-term future. That is why we think this big potential comes with many uncertainties.

Because of the challenges and because China has been growing for two decades, the figures over the past three years suddenly became much bigger than before. We realize China's growth is too fast and too sizeable. China itself, the region and the world is not prepared for this new, emerging, giant consumer of raw materials and many other things. Some articles, for example, say that the major factor causing higher oil prices is China's demand. Suddenly, everything seems different because of this rise.

So everybody expects high growth rates. High growth rates are good. But suddenly we realized this high growth is not necessarily all good. There are so many new problems. However, let's start with China's rise as an opportunity.

China has become a big incremental factor that makes large contributions to the

world economy. We have figures. One-fourth of the world's new growth is coming from China's growth. In particular, China has become a big importer. In 2003 alone, China's imports increased by US\$ 12.6 billion. That's more than half of the rise seen in neighboring East Asian economies. That is why all these economies feel China's strength. The size of this import bill is based, firstly, on exports. These are imports for exports. A lot of these imports are for exports of parts assembled in China. Only secondarily are these imports for domestic consumption.

As a competitor, the largest force we feel is the flow of FDI. The FDI is flowing into China rather than to other regions, especially Southeast Asia. Also,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producer for an increasing number of goods. There are a number of goods where China accounts for the largest share of manufacturing in the world, especially in the US market and in competition with other developing economies. As I said before, China enjoys a special advantage in cheap and abundant labor. Not just that, but high-technology capacity is also on the rise.

This abundant labor will continue for some time into the future. Even Guangdong Province now feels pressure to bring in new flows of labor. Because of the abundant supply in the past, they did not raise wages. Other regions can now provide better wage levels. So workers move to other areas. This shows that Guangdong Province is highly reliant on low labor costs for its competitive advantage. Also, with its surging demand, China is a competitor for energy and raw materials. We still do not know the future effects if this trend continues.

As for challenges, there are challenges not just for others but for China itself. The largest challenge for China is its export led growth and resource-intensive production. We are realizing that this is not sustainable. The world cannot secure such high, continuous increases in such demand. Many people argue that Chinese GDP only accounts for 4% of world GDP, but consumes something like 20% or 40% of raw materials, or even 70% in some areas. These figures have suddenly gotten very huge. China itself has realized this is not sustainable. We have to change our ways. The leaders have called for some scientific development concepts to fix this.

Bank bad loans are also a big problem. In the past, the government set up special financial companies to reallocate bad loans. But there are new bad loans that have been created, based on the high expectations for the future which I already mentioned. But now banks can't get their money back. Competition is very, very sharp for the companies.

Another general challenge is transition. There is a transitional problem. Some areas are growing very fast and some areas are not. There are growing gaps. This can be seen in migrant labor. Large numbers of migrant laborers have no legal protection. In the past, the government policy focused too much on liberalization of labor migration. That has already been realized. The second following issue is how to protect them, their rights, their benefits, their welf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All these kinds of things have happened suddenly. You need a system of support for the people.

Political reform is another challenge. There are many cases of corruption. How can you reform the political system? What model should we follow? The leaders realize that we need reform, but how? When? And what model should we follow? To be honest, there is no model we can follow. China is really quite different from any other country.

There are also challenges as many people are discussing power and whether China intends to revert to the "Middle Kingdom" or become a leader. Is there a possibl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in the future? How do we solve the Taiwan issue? All these kinds of things come to the table when China becomes powerful. How do we handle these issues? I leave the questions on the table and, I'm sorry to say, I don't have any answers to these many questions.

A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Let me now turn to some positive views of my own. Has a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emerged? My answer is yes. It is emerging.

China's rise is different from Japan's rise and the rise of the four dragons. Japan did not receive FDI. It imported technology, produced it on its own, and re-exported. As for the four dragons, only the Korean case is the same. The other three are too small for comparison. But in the Chinese case, we have more than US\$ 500 billion in FDI. This FDI creates a horizontal network. All FDI is closely connected with investments in other economies.

Because of China's emergence, China has become a hub that connects all the investments in the region. Also, due to its size and potential, China may become a big market for the region. China could also change its pattern toward domestic demand-led growth. That pattern is possible.

There is an old growth model for the economies of East Asia: the "flying geese" model. In the 1960s it was Japan, in the 1970s the four dragons and in the 1980s the ASEAN four. If China were to follow that trend, in the 1990s it would be China. But that old growth model stopped. There was a capital flow from Japan to the four dragon countries in about 1985. There was a capital flow from the four dragons to ASEAN in the early 1990s. In the past this created a chain in the region.

But there is one thing missing. East Asian economic growth is highly reliant on the US market. Japan exports to the US. The US is its largest export market, with a surplus. The four dragons export to the US, also with a surplus, and it is their largest market. Finally, ASEAN exports to the US with a surplus and it is their largest export market.

Japan beca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but failed to provide a growing market for the region. In terms of ASEAN-Japan trade, ASEAN has a deficit. In terms of the four dragons-Japan trade, the four dragons have a deficit. With the growing size of its economy, Japan has failed to provide a big market for the region. There is no market to support regional growth. So regional growth is highly reliant on an outside market, that of the US. It's not stable.

This is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financial crisis. The crucial factor was

that the marke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f you recall, before the financial crisis, most economies had a bad balance of trade. The trade deficit increased, which hurt confidence in the market. Also, Japan became a “fallen lead goose”. So the chain of growth which I described was broken.

Now we have new hope with China’s network of FDI. The FDI flows into China create a new network of production and services. China has become the hub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region. A new trade and investment trend has emerged. Intra-regional transactions have increased sharply.

China has seen an import surge. In 2003, China’s imports increased by US\$ 12.6 billion and exports by \$ 11.3 billion. Also in 2003, China’s imports from East Asia rose to \$250 billion, a rise of \$7.5 billion from 2002’s figure.

China’s new role, which used to not exist, is to reallocate resources and trade surpluses, especially from the four dragons. It is a hub for production networks, not just for exports but also for sale within China. It is a growing market for the region due to re-exports and increased domestic demand. If these emerging trends continue, it could become a potential investor in the region in the future. For instance, China’s FDI outflow last year was US\$ 2 billion, according to statistics. We thought, though, it would be much higher than this.

If you look at Figure 4, you will see that in all cases exports to China from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creased from 1990 to 2002. It increased very sharply. Figure 5 shows the direction of China’s trade in ASEAN, in Korea, in Taiwan and elsewhere in the region.

Below, Figure 6 reflects a study done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t looks ahead to 2020 and assumes that China will continue to play the role which I described: reallocating the trade surplus of nearby economies. The study assumed that China would continue to gain the surplus from the US, the EU and the rest of the world, and then reallocate this surplus toward East Asia; toward ASEAN, the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 and Japan.

Figure 4. Changing export shares to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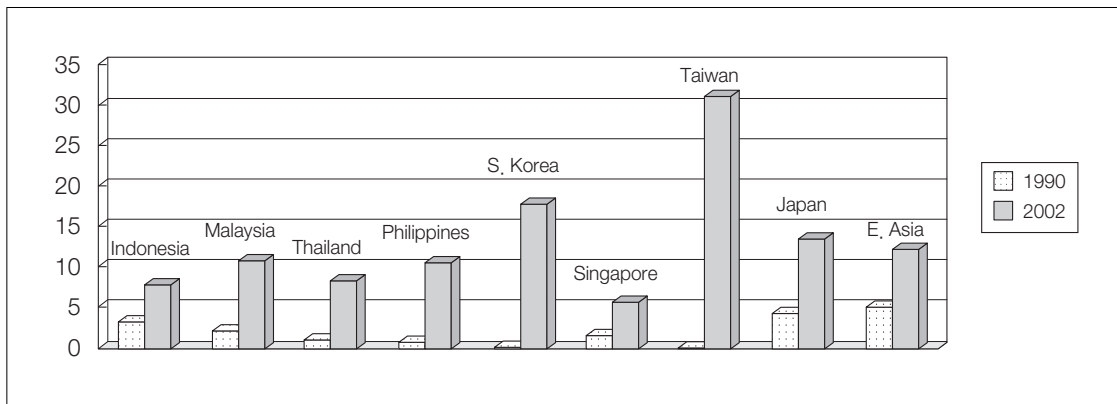


Figure 5. Direction of China's trade (2003, growth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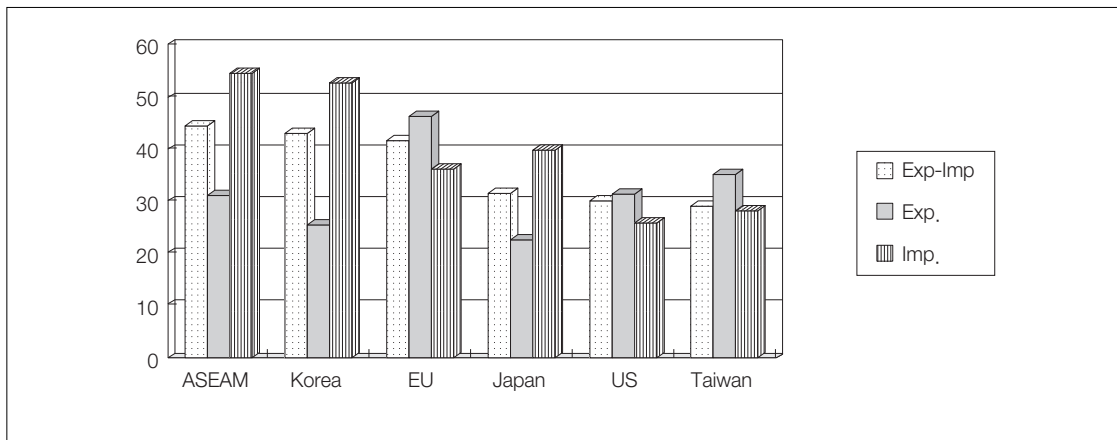


Figure 7 shows to some extent the clear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economic growth and that of the rest of the region. China's figures are actually a little bit higher than this, because this is a prediction based on the 8.5% GDP growth *per annum*. So the lines are a little too low in this chart. As we can see, China's growth pattern is largely similar to that of the region this year.

Does a new pattern or trade emerge? Yes, but we still need more time. It is emerging, it has not yet emerged. The US market is still important, but exports to the US are stagnating and even declining for most economies. The total sum is still big, but the trend is declining. This shows that its role is declining for the region.

Figure 6. China's trade balance: Capital contribution to the region (2020, A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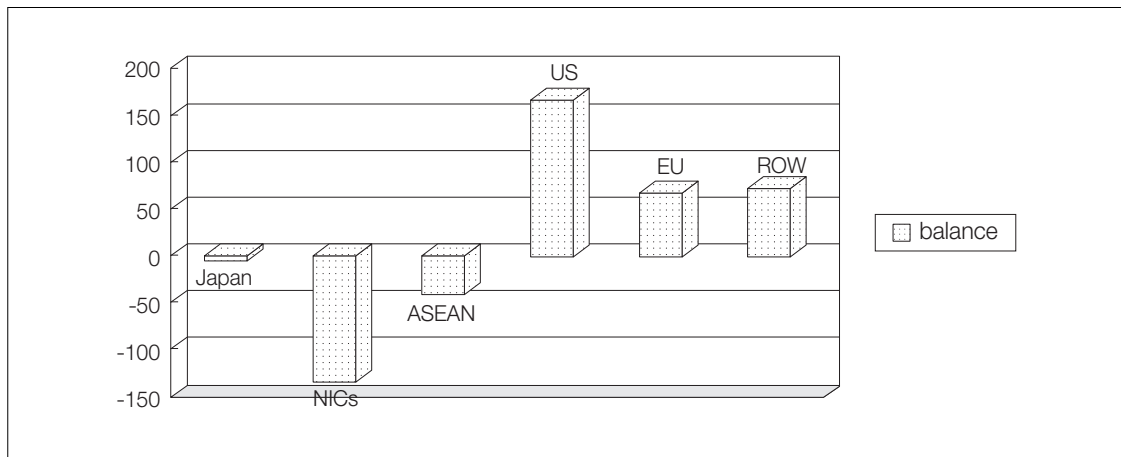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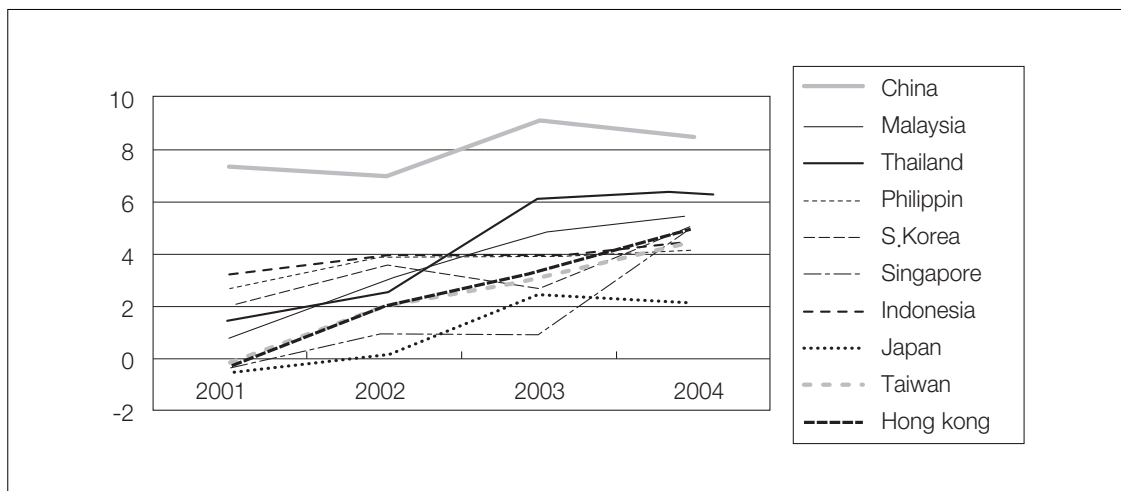


Figure 7. A clear linear line: Growth of China and the region



This new FDI network creates a stable and increasing market for the region. The most highly growing part is intraregional trade. China emerges as a big market for exporters with huge potential for the future. If this current trend continues in China, Asia may establish a new growth paradigm, which we have lacked during the past experience of the so-called East Asian “miracle”. The “miracle” too highly relied on the US market alone. Now, because of China’s economic rise, we are starting to create a major market for the region which may set a stable foundation.

The nature of the new growth pattern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top-down model. Because FDI is horizontal and has a division of labor, it creates multiple

processes among the many economies in the region, not just one or two economies. The process of production can happen in many countries. The intraregional process can begin to happen.

Wealth distribution has been decentralized. Its kind of a parallel development. Some economists call it a “bamboo” economy, because you have one kind of production activity, and then suddenly some more follow, increasing the trend upward and upward. This intr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s continuing to grow. This is different from the top-down “flying geese” model.

Does regionalism help? We are discussing East Asia’s regionalism. This emerging regionalism is based on economic integr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multilayered FTAs now in progress. In the past, thi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was highly based on the market performance itself. But there was a lack of policy support and there were a lot of obstacles that hurt the efficiency of transactions. What we need now is policy support through government arrangements, through these FTAs.

These multilayered agreements will find a way to coordinate and create an East Asian FTA in the future. We cannot solely, or mainly, rely on the region itself. East Asian FTAs follow this new open regionalism, different from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APEC regionalism is based on unilateral liberalization open to all. But here it is through arrangements. This does not prevent East Asian economies from making other arrangements with other regions.

Hope is there if we successfully converge all these multilayered arrangements into one. As of today all these emerging concepts, like East Asia as a region, or the East Asian community, or an East Asian FTA, have been accepted without controversy. But the issue still remains: how to formulate this concept into practice? We need wisdom, efforts, a process and time.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hip

Generally, the China-South Korea economic relationship is highly complimentary. This will continue. Korean FDI-led exports by Korean companies and imports by Chinese companies are beneficial to both sides. This trend will continue. A lot of Korean economists are worried whether or not this complimentary nature will change in three or five years. My perspective is that it will continue for a decade or so, or even longer. The Korean economy is so creative. I think it will find a way to operate itself. The gaps will continue to exist, and this complimentary nature will conti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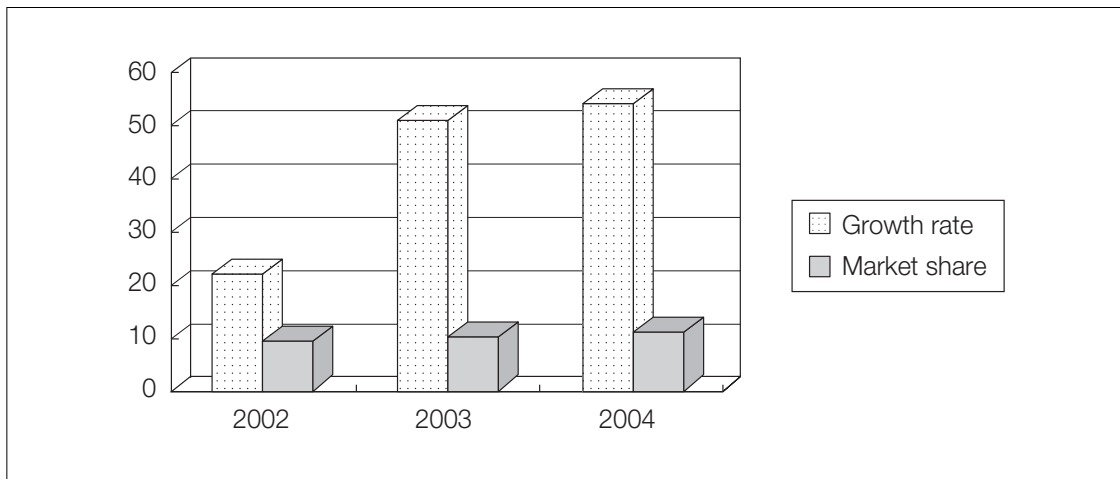
The gap will be reduced in some areas, but overall the Korean economy will keep its competitiveness in many high technology sectors. Figure 8 shows China's imports from South Korea. Based on this trend, Korea's exports to China last year increased 51%. China continues to have a high number of Korean exports, and this year—I just saw the new figures—this trend will continue.

You have to see that China is changing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forcing readjustments. This creates opportunities, as did industrialization. This general trend is similar to that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during the 1970s. Korean companies should grasp this opportunity to domestically reallocate their capacities and then upgrade themselves to new factories. Another opportunity is telecommunications. This has great potential.

But Korean firms must be cautious about the car industry. The car industry in China has too many investors and too much competition. Prices will come down very sharply. So be cautious about investing new money there. Study the market carefully.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ompanies need to consider network building in the region. This means they must allocate their investments not just to China but they should consider the whole regional network.

Figure 8. China's imports from South Korea



Questions & Answers

- Q** We all know that China's "soft landing" is crucial for the world economy. It seem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cool off its so-called "over-heated" economy by restricting bank loan growth. It seems to me there are more than a couple tools in the hands of the Chinese government to attack this issue of an "over-heated" economy. Will these measures include things like permitting more Chinese investment abroad, or perhaps a currency revaluation, which is a hot topic in US politics today?

In particular, many critics blame the pegged currency as being the major reason for the US-China trade deficit and surplus. It seems that a currency revaluation is a more logical step to redress this "over-heated" economy than, say, restricting bank loan growth, which could perhaps hurt the local economy. Do you have any comments on this?

- A** The deficit and surplus in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S is due mostly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structure. There has been a reallocation of exports from Japan and the four dragons to China, to use its
-

cheap labor. It is not because of the exchange rate of China's currency. In particular, when we consider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network of production processes across the region among different economies and companies, we see that a stable Chinese currency is beneficial to all, not just to China.

If you changed the exchange rate, you would change these networks. It would create an unstable factor, in addition to China's already existing unstable factors of banking and all the other factors. The regional network needs a stable currency. We have a multi-cooperation network in the region that requires a predictable exchange rate.

The deficit and surplus in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S is not a Chinese factor alone. It's a regional factor. In addition, it's not coming primarily from the exchange rate between the renminbi (yuan) and the US dollar. If we were to change now the renminbi-US dollar exchange rate, China would probably not be able to afford it. We still need time before changing the rate. China valued its currency in the early 1990s. We already have such a long time at this rate. Export capacity is not based on the valuation of the currency. It is based on all the development and reallocation of resources that has taken place in the new regional growth paradigm and of export capacity in the region.

I hope that in the future the renminbi rate against all currencies will be more flexible. But not right now. There are still too many problems that might occur if you unloosed this particular exchange rate.

China imports to export. A revaluation of the renminbi would reduce the cost of imports. So it would make Chinese products even more competitive rather than increasing their cost. This is no way to change the deficit and surplus in trade between China and the US. It would just cause problems in the banking sector. According to another study of Chinese exports, the current exchange rate is almost representative of China's export costs. I don't

think there's a close linkage between China's current figures and competitiveness.

If you change the exchange rate you can release the pressure on the money supply. The central bank would have a heavier burden to buy back in order to keep stability. The problem is, if you change the exchange rate, you create even bigger instability in the monetary market. This change in policy, if it were to happen, would only occur in the future when the situation were more stable.

Q What are the long-term prospects for the liberalization of China's capital account?

A Over recent weeks, the central bank has adopted several measures that hint at more flexible capital control. This will more easily allow capital to flow out to relieve the pressure of mounting capital accumulation in the Chinese market. That's one way. Another way that is encouraged is to get companies to invest abroad and to transfer the capital if necessary.

The flexibility of exchange rates will not become policy during the next few years. The trend is there, but not in two or three years. Capital controls will be released gradually to let capital flow out and to relieve pressure at home. In the near future, increased capital contractions within China would make capital transactions more flexible.

Q What is the roadmap for reforming the banking sector and all its problems?

A This process has already started. Step one is to liberalize the banking sector and banking services for foreign companies, as more and more companies come into China. Another is to encourage foreign banks to buy major Chinese banking shares, particularly in the Chinese construction and industrial banks. This would allow them to become multinational. Also, security companies are open for foreign buyers.

Q Can there be a multi-currency floating basket peg system for the renminbi? What is the Chinese view on an Asian currency unit?

A Most of those currencies are not yet fully convertible. I do not think there is any possibility in the near future of such a collective floating system in the region. In the near future, what we may do is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and create a more secure regional market to provide the confidence for the market.

If some economists from countries like Korea, Japan or Singapore want to have, as a pioneer, this kind of collective floating system, I think it would be acceptable to China. But China would not join before its currency became convertible.

As for the regional currency, there is an Asia-Europe Meeting (ASEM) special group that is responsible for writing recommendations for the leaders' meeting in October. We are very cautious about our choice of words in this regard. We can only talk about a "possible" one currency for East Asia. I still remember some of the debate among our East Asian group members. We have to talk about "possibilities", as opposed to any "feasibility". It's a good idea, but it still has a long, long future.

One currency needs high-level political support. Without support from the high-level political establishment, you cannot have a regional currency at all. That's a regional high-level political issue that needs to be built up. We still need a long, long time. I guess more than a half century from today, until the Chinese accept a regional political community for the future. I do not know about Korea. In Korea, you have to realize unification first, rather than unification of the region. We will not see this in our lifetimes.

Q The US has enjoyed good growth for a number of years. Economists there say it could grow, while containing inflation, particularly due to the productivity growth of the high technology industry, especially IT, for a

number of more years.

But recently, there has also been an argument that the containment of inflation is thanks to the import of cheap Chinese products. These days China consumes a lot of raw materials: oil, coal, aluminum, steel, et cetera. Is there any danger or chance that this will trigger worldwide inflation?

A Several months ago, all the questions referred to deflation as being a Chinese factor, not inflation. Now, it is inflation.

Generally, this import of raw materials is only partial. When raw materials become a manufactured product, it can still generally reduce the costs of the final product. Oil, though, is one factor that is uncertain in this regard. China is not a major factor contributing to the current oil price boom.

We expect future inflation rates to reach between 4% and 5%. But worldwide, when I consider China's share of the total world's GDP production, I do not think the China factor will become a major factor to inflate all the world's prices.

Q Your presentation today provides a base level upon which we can now build discussion. We all share very much your perspective. We already have the experience of a country like Korea where, for 40 years, the per annum growth rate has averaged 8%. I have no doubt that China has the potential to achieve what Korea has achieved.

You described China as being in the 1970s relative to Korea's case. But there are huge differences. If Korea were a little ballerina climbing that tightrope of growth, China is inevitably a huge elephant that is trying to accomplish the same thing. There are clearly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of Japan and Korea, which were command economies, and that of China. I do not see China pursuing a command economy growth model. It is really a free market economy. Both Korea and Japan excluded foreign players from their markets,

particularly in the early days. China has actively included foreign players into its economic development right from the beginning.

Quantitatively, the numbers are impressive. But qualitatively we all know there are huge challenges. For example, whilst China is becoming a larger and larger consumer of raw materials and energy, it is still a very wasteful consumer of those things. At the same time, it is a huge producer of pollution.

To what degree is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going to play a leadership role during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to try to mitigate both of these problems? How will the central government increase the efficiency of use of raw materials so that China's impact on the world's supply of raw materials is not too extreme? Simple extrapolation from today would have the world consumed by China within a hundred years. Also, how can the Chinese government quickly raise pollution standards before industrial development gets too far ahead?

Secondly, while cheap labor is fun, we all know that cheap labor is not the same as productive labor. Therefore there is a huge qualitative challenge for China, to upgrade the quality of its labor and to provide education. Apparently, very few Chinese people today can go to university. Access is only for about two million people per year, out of a population of one billion. This qualitative upgrade of the workforce is vital. Cheap labor will not last for very long, as people in Shenzhen, Guangzhou and Shanghai will tell you. Industries are even migrating away from those regions.

One final question concerns logistic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It is very difficult to move goods around China. To what extent does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understand these issues and pursue them aggressively, even whilst maintaining the balance of the elephant?

A You actually raise some very complex issues. I mentioned that the Chinese case is very unique and very new. We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 huge

country in the process of such industrialization. What does this new industrialization mean?

There is a transfer of the population and a change in the economic structure. We need a clean economy and we need a high growth rate. How do we balance all this? I don't think there is just one answer.

Some areas are more positive. This FDI-led growth pattern will see people move more and more toward the efficient sectors. This will put China in a better position to move toward a better and less-polluted stage of development. During these early stages, China is a great maker of pollution as the transfer of cheap labor production occurs. But later on, we will see the reversal of this process. FDI will help China shorten this period of inefficient growth.

Secondly, efforts made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have forced the larger cities to abide by EU emission standards for their cars, for example. Many measures were adopted to have more restrictions on such pollution standards.

But on the other hand, as a developing economy, you can see when travelling in China why there is so much consumption of steel, cement, et cetera. Those are basic infrastructure developments. You can build with steel and cement for upward of two decades because of China's size, just trying to build basic infrastructure. There will be more and more demand for cheaper prices for the basic infrastructure. This is the other side of the dual economy.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suddenly realized that this current model cannot be sustained. This raw material-based growth cannot be sustained in China or in the region. But how do you transform this understanding into a coherent policy?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e all want to see the ideal modernization of China. But it's a problem for all of us, not just for China.

For instance, we have to stop the transfer of polluted production into China. But it's very difficult. Companies need it. China needs it. I just travelled to Guanxi Province last week. We investigated many local projects. You see, all local projects?like steel or cement?all pollute a lot. But they are very profitable, too. One way or another, you have to use the administration to stop them from polluting. But you have to find a way in which to allow the people to make money, too. They have to do something for a living. What is a clean way for them to do so?

Scholars can argue that rural people should just keep their natural surroundings. But nobody wants to live in such nature for long. This is a problem. This is a challenge, not just for China but for the world. The world has to help China find a way toward a proper modernization path. The challenge is for all human beings. We have never experienced such a sizeable growth so quickly. We have to share our collective wisdom.

The market is one side. It is very strong. Government policy is another side. It is sometimes very strong and sometimes very weak. That's why we have a pollution issue, even across borders. We need cooperation, rather than just asking China to stop this or that. In fact, a lot of the investments that make the pollution come from Korea and Japan.

Q What is the GDP per capita in the three major cities of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A Last week, we had a debate between some top Chinese economists. One of them pointed out that Korea experienced a very high growth rate and, hence, moved toward becoming an advanced economy. Why has China failed to yet become an advanced economy after two decades of rapid growth?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have reached a level close to that of Korea, at least of Korea during the mid-1990s. But the other parts of the country have not. This dual economy will continue to exist for some time. I

hope that after another two decades of growth, at least half of the Chinese economy will be as rich as Korea during the mid-1990s. By the year 2050, all of China should have what we call a comfortable life and have reached the level of Korea in the early 1990s. Still, you continue to find many parts of China that are still at a low stage of development. This sharp comparison will continue. It just reflects the nature of our economic structure. The gap between regions will continue to exist for a long time.

Q What is your strategy to deal with the huge imbalance between the prosperous regions and cities and the rest of China?

A Generally, there are three or four major policies. First,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adopt this “Great Western Development” strategy to allocate funds toward poorer western regions. Also, there are sister arrangements between well-off and rural cities, like between Shanghai and Yuenlong, or somewhere. They transfer a lot of resources from rich areas to the poor, including human resources. There is a special system where you have to spend several months or a year working in that poor area without any payment from the locals, all paid by Shanghai or by the coastal areas.

Last year the central government adopted the new “Northeast Renovation Project”. It focuses on the readjustment of the SOEs and opening them up for foreign investment. They can now be bought by foreign companies and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joint ventures. This is one way to attract more funds and to give more privileged policy arrangements.

The second way is to adopt a new, more liberal policy. In the past, the “Northeast Renovation Project” would have mostly relied on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y are trying to create institutional change in that region. They encourage more private sector individual efforts to allocate seed money to support individual firms or businesses. This is to create not government jobs, but individual and firm jobs. This was a very big shift when it happened last year.

Third, the government must change this traditional poor relief policy. They must turn it into a development-oriented policy, to support more entrepreneurship, business and technological transfer to the poor regions. This would develop local economies.

Fourth, encourage foreign investors to come to the region. As I mentioned, though, this regional gap will continue to exist for quite some time. There has also been a mind shift about the way in which to develop these least-developed areas. In the past, the thinking was to simply support economic growth. But now, policy makers realize this is wrong.

When I travel to, for instance, Qinghai Province or Yunnan Province you realize it causes really big problems when you simply provide funds to support the local economy. You damage the locals' environment, both business and ecological. There is some new thinking underway now where you reallocate populations from the mountainous areas and encourage them to flow to other regions. This includes the creation of urban areas to encourage people to move. Some economists also argue that, in the future, the coastal areas alone will probably be able to take at least 80% of the population, leaving the western parts to nature, for instance rivers, mountains and the environment. This will change the overall development picture of China.

So there are some new thoughts on these matters. Generally, they follow concepts about scientific development strategies. They try to create new ideas. Already, the government has begun discussing how to preserve nature and how to encourage farmers to plant trees while growing food. There are a lot of new measures, especially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easures. What do these traditional concepts mean in the Chinese case? How to implement them? How to use these ideas in China? We have to jointly discuss it to find a way.

Q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pushing various so-called

“business hub” projects. It would like to induc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would like to play the role of a catalyst which would trigger multinational cooperat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volving China,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of course. The focus of these infrastructure investments would also include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as well as Siberia. Do you see some feasibility in this idea?

A Just yesterday, a conference started in Dalian. It’s titled “Northeast China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Northeast Asian Cooperation”. There are a lot of Koreans, Japanese and Russians gathered there with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all sitting together. This is a sign of the progress that has taken place. There are many things we have done, including various calls of some sort for a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This kind of government-oriented project seems very difficult. But there are commercial ways to do so. We could launch a bank in Tianjin and call it the “Northeast Asia Commercial Bank”, or perhaps the “Bohai Commercial Bank”. Such cooperation would be based in China, Korea and Japan. For the environment, such as oil projects, Russia and Korea already have some sort of gas pipeline project. This kind of thing will continue to happen. All of these projects have a good future, but with some difficulties.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회원에 대한 서비스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행사 참가비 할인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mail : 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